



죽비와 묵탁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



### 불교,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

6월 10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는 70만명이 운집, 장관을 이뤘다. 이날 26개 불자단체를 또한 서울 조계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한반도 대운하 계획 철회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리로 나섰다. 스님들이 거리행진을 펼치고, 촛불집회에 등장하자 기자·시민들이 일제히 물러났다. 학생들은 이런 스님들이 신기한지 휴대폰 사진을 찍기 바빴다.

스님과 종무원, 불자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민심과 호흡하는 모습, 무척 보기 좋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이 나선 것을 이렇게 '새삼스럽게' 느껴야 하나 영 개운치 못했다.

그 동안 불교계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도,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대해서도 늘 한발 늦게 관심을 보였다. 종단 차원에서, 사회적 사안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논평을 내 일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일각에서는 불교계가 정계 '잇분들'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적으로 얽힌 일이 많아 정부 정책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데 적잖은 부담감이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톨릭의 경우 그들 종교의 상징과도 같은 명동성당을 사회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빈번하게 내주고 이

는 곧 가톨릭 교세 성장의 동력으로 되돌아갔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되어 중생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가르친다. '함께'라는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대승불교를 따르고 있는 한국 불자라면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화두다.

원효 스님은 '진속불이(眞俗不二)'의 자세로 살았다. 원효 스님은 교학적으로도 뛰어났지만 중생 속에서 함께 호흡했기 때문에 더욱 존경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부가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종단과 단체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 중생 없이는 부처도 없다.

중생의 실제적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민심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히 사회이슈를 분석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각 종단에서는 방송·언론 등 미디어 전문가와 정치·경제 등 각계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지소선후(知所先後)면 즉근도의(即近道矣)'라 했다.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알면 도에 가깝다는 말이다. 불교의 사회적 대응도 '타이밍'이 필요하다. 우리 불교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 그것은 '민심의 소리'가 아닐까.

# 조계종 '율원령' 제정 공포

## 1년간 심의 거쳐 확정...승풍 진작·율학연구 활성화 기대

조계종 승가전문교육기관의 하나인 율원은 예로부터 계율을 통해 승가 기강을 세웠다. 신라시대 자장 스님이 통도사에 금강계단을 세운 이래 해인사·송광사 등 총림을 둔 큰 절에는 율원이 있어서 한국 불교의 계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정작 조계종은 종법인 교육법 제92조에서 제97조에 의지해 율원을 유지해 왔다. 이런 가운데 6월 10일 열린 제97차 조계종 교육위원회에서 6월 5일자로 '율원령' 공포를 확정했다.

5일 공포된 율원령은 2007년 7월 입법예고 후 1년여 동안 수차례 심의를 거쳤다. 송광율원, 해인율원, 영축율원 등 7곳의 율원 대표자가 율원총칙, 설립과 인가, 교역자, 율원 운영,

학사운영 등 6장 40조의 율원령을 심의해 제도화했다.

이 율원령에 따르면 교육원의 인가를 통해 율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단 기존 율원은 율원령에 의해 인가된 것으로 경과조치 했다. 율원의 직제 및 율주, 율원장, 율감의 역할도 규정했다. 율원 과정은 전문과정 4인 이상 10인 이하, 연구과정 2인 이상 10인 이하로 했다. 전문과정을 마친 스님은 중강자격을 대학원 졸업과 동등한 자격을 얻는다. 연구과정을 마친 스님은 강사자격을 받는다.

교역자 규정도 포함됐다. 율주는 승랍 30년 이상 스님으로 종사비구니(명덕) 법계를 수지하도록 했다. 율원장은 승랍 20년 이상 스님 중 전계를 받고 율원 교수 경력이 10년 이상

으로 제한했다. 또 교수는 승랍 5년 이상으로 율원 연구과정을 졸업했거나, 율학 관련 박사과정 수료자, 율원 전문과정을 졸업하고 중강으로 3년 이상 강의한 경우, 율학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중강으로 3년이상 강의한 스님으로 한정했다.

율원에는 율주와 율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율사)를 두며, 2년 임기의 9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금강율원 율원장 적연 스님은 <사분율> 중심으로 교과과목도 정비되어 정식 승가교육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승의사 활동도 자격을 인정받아 율원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 말했다. 특히 율사스님들은 "수행연합을 인정받은 학림, 승가대학

원과 달리 승가고시 등에 혜택이 없었던 것이 해결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율원령 제정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강조하는 포살과 결계 등 수행 중풍 진작운동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율원령 제정으로 3년 제도 미비로 수행이력을 위해 기피했던 승가의 율학 연구가 새 전기를 맞았다.

한편 학림의 학제를 전문과정 2년, 연구과정 3년으로 개편하고, 시설·설비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학림령 개정안도 6월 5일자로 공포됐다. 교계는 이번 율원령 제정과 학림령 개정으로 조계종의 승가교육 인프라가 굳건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태고종 충북교구 연수원 개원법회

태고종 강원교구와 충북교구가 이전법회와 연수원 개원법회를 각각 봉행했다.

태고종 강원교구종무원(원장 백은)은 6월 10일 춘천시 소양로1가 법당사 앞 빌딩 3층에서 총무원장 운산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교구종무원 이전법회를 봉행했다.

충북교구종무원(원장 원해)은 6월 9일 중앙중회 의장 상명, 부의장 원봉, 사정원장 운공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원 개원 및 정안 법회를 봉행했다.

종무원 건물 1층에 위치한 연수원은 198㎡ 규모다.

손효선 기자

## “나무 심어 한반도 푸르게 가꿔요”

### 민추본 창립 8주년 기념 '통일나무심기 운동' 선포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 이하 민추본)가 창립 8주년을 맞아 6월 8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기념 법요식 및 '통일나무심기 운동' 선포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추본 본부장 명진,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조계종 사회부총서 겸 스님과 '겨레의 숲' 상임이사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백낙청 상임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통일나무심기 사업 현황 및 계획



민추본이 창립 8주년을 맞아 '통일나무 심기 운동'을 선포했다. 사진은 한반도 모형에 나무를 심고 있는 민추본 관계자들의 모습.

###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간과 장치를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 지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정보제작
-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복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02-2004-8279

발표, 나무심기 상징의식, 정세현 前 통일부장관 기념 강연 등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명진 스님은 "통일나무심기 운동은 북한사회가 갖고 있는 '식량난-벌목-삼림황폐화-홍수피해-식량난'의 악순환 구조를 끊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명진 스님은 "이 사업을 위해 민추본은 '겨레하나' 등의 대북사업단체들과 연대, '우리겨레 푸른숲'을 결성했"다"며 "‘우리겨레 푸른숲’은 양묘장 건립 등을 포함하는 3개년(2008-2010년) 계획을 수립, 북한 조립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추본은 양묘장 내 시설양묘원 1개동 및 부대설비 지원을 맡아 불교계에서 총 2억원을 모으는 사업이다. 민추본은 오는 9월까지 '1가족 10그루 심기', '통일나무심기'를 위한 108배 등의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 ‘금강경’ 표준본 편찬 공청회

### 불교학자·언론계 인사 등 100여명 한자리에

“구마라집본을 저본으로 택한 것이 옳은가?”

“운문화 작업보다 번역 기본 지침에 관한 토론이 필요하다.”

6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조계종 표준본 <금강경> 편찬을 위한 공청회에는 편찬 회의를 앞둔 마지막 공청회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많은 의견들이 쏟아졌다.

공청회에는 청화 스님(교육원장), 현종 스님(불학연구소장)과 연관 스님, 각국 스님 등 금강경 편찬실무위원, 강원 강사, 불교학자, 국문학자, 시조 시인, 재가 불자, 언론계 인사, 청년회 학생 등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청화 스님은 <금강경> 편찬사업 마무리로 대중적 공의를 얻고자 마련한 자리다. 불처럼 읽으면 스며들 수 있도록 번역에 힘썼다"고 말했다. 편찬 실무를 맡은 연관 스님도 "대중을 위해서는 평이하게, 부처님 원음을 위해서는 직역을 택했다. 구마라집본과 같은 의역은 선지식

들이 할 일"이라고 강연했다. 공청회 발표자들은 크게 ▲용어 통일 등 번역 기본 지침을 묻거나 구마라집 저본 선택을 문제시해 편찬사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부류 ▲완성된 편찬본을 존중해 지엽적 의견을 제시한 부류로 나뉘었다.

전재성 박사(한국 배알리성전 협회)는 "2차본인 한문본을, 그 중에서도 구마라집본을 소의경전으로 삼은 것이 한계다. 범본과 한문을 부분마다 달리 의존해 통일되지 못한 것도 문제"라 지적했다. 용어 통일의 필요성은 전재성 박사 뿐 아니라 김영두 교수(원광대) 등 다수의 참가자가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쏟아진 의견은 조현춘 교수(경북대 심리학)가 <‘금강경’ 번역대회>를 열자고 제안할 만큼 다양했다. 불학연구소가 그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느냐에 따라 종단 표준본 <금강경>의 위상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조동섭 기자

## 경봉대선사 제 26주기 추모법회

귀의 삼보하옵니다.

한국 불교의 큰 별이셨던 경봉대선사께서 열반에 드신 지 어언 26주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극락호국선원 경봉문도회에서 밝고 환한 지혜의 등불로 다함이 없는 가르침을 베푸셨던 경봉대선사의 뜻을 기리는 추모 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무 참석하시어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시 | 불기 2552(2008)년 6월 30일 (음 5.27)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호국선원 무량수전

내용 | 경봉대선사 26주기 추모법회

2008학년도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문의 | (055)382-7083

영축총림방장 원명 극락호국선원장 고원 경봉문도회장 원산

경봉문도회 제4회 정기 총회

추모법회 봉행 후 오후1시 극락암 무량수전에서 열립니다.

### 2008년도 경봉장학회 선발공고

재단법인 조계종 경봉장학회는 2008년도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동국대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4명
학사과정	11명
중앙승가대	12명
통도사강원	8명
선원	3개소

경봉대중사 제26주기 추모법회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봉행되오니, 선발된 장학생은 추모법회에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조계종 경봉장학회 이사장 원명